

국토부·전남도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타당성 용역' 논란

“경제성·기술력 낮다” vs “수요예측 잘못됐다”

용역 결과 공개해 전문가들과 공개토론 해야

국토해양부의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타당성 용역'은 광주~제주, 목포~제주 등 모두 6개 노선을 두고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 검토 등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또 국토부는 이번 용역과 함께 공사비를 낮추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별도로 연구하고 있다 그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이번 용역의 수요예측과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의 분담률을 너무 적게 잡아 경제적 타당성이 턱없이 낮게 나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며 공사비는 20조 이상이고 공사기간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기술적인 측면도 검토됐다. 해남~제주간 해저터널은 연장 89km로 세계 최장이며, 이 공사에 필수적인 실드 TBM(Tunnel Boring Machine) 등에 관한 국내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손꼽혔다. TBM은 굴착기 전면의 커터헤드(cutterhead)를 회전시켜 원형터널을 뚫은 뒤 미리 제작한 터널 벽 조각(Segment)을 조립해 터널 벽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공법이다.

또 최대 수심 160m인 화도~제주도 구간은 최대 16기압에 달하고, 제주도 인근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 자료를 통해 “철도기술연구원과 건설기술연구원이 공사비를 절약하고, 안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

노선대안별 검토결과

Table with 4 columns: 노선, 경유지, 노선연장(km), 사업비(억원). Rows include 목포~제주, 목포~해남~보길도~추진도~화도~제주, 목포~해남~보길도~제주, 광주~제주, 광주~해남~보길도~추진도~화도~제주, 광주~해남~보길도~제주.

운영시간

Table with 4 columns: 노선, 300-300 km/h, 300-200 km/h, 250-200 km/h. Rows include 서울~제주, 광주~제주, 목포~제주, 해남~제주.

다”고 밝혔다. <수요예측 엉터리, 공개 토론하자>=전남도는 이번 용역에 대해 “수요예측과 교통 수단별 해저터널 분담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엉터리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먼저, B/C 0.

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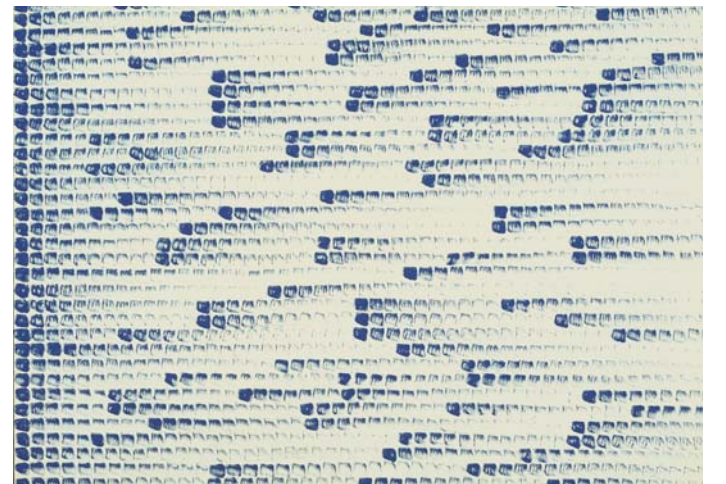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 관광객 874만명을 기준으로 개발 계획 등 상황적 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연도별로 추산해도 2036년에는 2944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날씨가 나쁘면 탑승이 불가능하고 승객과 편수가 한정된 항공·여객선에 비해 해저철 분담률이 50~60%에 머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현재 총 165억원을 들여 TBM의 핵심인 커터헤드의 설계·제작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등 관련 국내 기술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만 낳지 말고, 차라리 용역 결과를 공개한 뒤 국내외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경제성과 기술적인 문제를 면밀하게 따져 건설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게 국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특별 전시展



삼라만상은 점으로 시작해 점으로 돌아간다

이우환 작 '점으로부터'

흰 캔버스 위의 무수한 점. 짙은 점이 점차 희미해지면서 사라지더니 다시 되돌아간다.

캔버스에 물감으로 찍은 점. 그 개 다다. 어이없을 만큼 간단한 게 작가 이우환의 그림이다. 이씨는 이러한 점 그림으로 세계적인 화가가 됐다. 광주시립미술관의 하정웅컬렉션 중 하나인 '점으로부터'(From point)는 그의 1974년 초기작. 점의 숫자와 크기를 줄여 단조로워지고 간결·담백해진 후기 작품에 비해 그만큼 희소성도

높다. 지난 2007년 소더비 경매에 나온 그의 1978년 작품 '점으로부터'의 낙찰가격은 19억원. 이 작품과 크기가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품가 대략 짐작이 간다. 1936년 경남 함안 출생인 일본 대 철학자를 졸업한 뒤 1960년대 말부터 70년에 걸쳐 일본에서 유행한 '모노화(단색화) 운동'을 이끌었다. 일본은 2005년 현대미술 100년을 맞아 이씨를 대표작가로 선정했으며 2010년 5월엔 일본 나오키마에 이우환 미술관을 건립했다. /김지희기자 dok2000@

박준영 지사 "본격 대선행보 맨 사퇴 용의"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한 박준영 전남지사가 "대선행보가 본격화 될 경우 지지자를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지난 6일 인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시직은 유지하고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할 것이지만,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 경우 사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30일 치러지는 예비경선(컷오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자를 사퇴할 경우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 때"라고 밝힌 것으로 판단할 때 본선 진출자 5명을 가리는 컷오프 통과 여부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주통합당은 오는 29~30일 예비경선을 통해 경선 후보자를 5명으로 압축하고 9월 23일까지 당 대선 후보를 결정키로 경선물을 잠정 확정했다. 이럴 경우 당내 경선주자로



거론되는 8명의 후보 가운데 3명 가량이 컷오프될 전망이다. 한편 박 지사는 '서해안 시대를 준비하며'라는 주제의 인천 강연에서 "남북평화와 미래에 다짐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과 인천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발행 후 국고 보전 방식'을 제안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민주, 30일 대선주자 '빅5' 압축 신경전

후보들마다 선택 달라 최종안 도출 진통 클 듯

민주통합당이 29~30일 이틀간 컷-오프(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해 마지막 날 본경선 진출자 5명을 발표하는 잠정안을 마련했으나 후보들의 선택이 제각각이어서 최종안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8일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완전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 전에 컷-오프를 마무리 짓기 위해 23~24일까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29~30일 이틀 동안 '당원 30%+일반 국민 70%'의 여론조사를 실시, 본선 진출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할 계획이다. 본선 선거인단은 다음달 8일부터

모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국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박준영 전남지사와 조경태, 김영환 의원 등은 컷-오프 물에 반발하고 있다. 방송 토론회 등 충분한 경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되는 여론조사 컷-오프는 결국 인지도 조사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장, 조정태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의 참여 기회가 박탈되는 것으로 명백한 불공정 경선"이라며 "이렇게 되면 소수의, 그들

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준영 전남지사 핵심 관계자는 "윤리규정이 끝나는 8월 이후에 컷-오프를 실시해도 시한이 충분하다"며 "국민과 당원에겐 평가받을 기회마저 부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본선 통과 관련해서도 후보들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완전국민경선에 대해 문재인 상임고문 측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은 대체로 불만족스러운 표정이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완전국민경선 제 도입을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대선을 앞둔 19대 국회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손학규 고문과 김두관 후보 측에서는 "모바일 투표의 안정성에 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캠프 일각에서는 결선 투표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문재인 상임고문 측은 완전국민경선제를 수용하는 기류다. 문고문 측 관계자는 "더욱더 많은 국민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경선이라는 원칙이 지켜진다면 구체적인 부분은 당이 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2일 경선주자들의 대리인 회의를 열어 경선 물을 조율하고 16일과 18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 20일 당무위원회의를 개최해 경선 물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선 물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이해득실이 달라 조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HITEJINRO advertisement featuring a couple holding glasses of beer. Text includes '소주는 개개기쁨이다 소주는 이슬이다' and '100% 천연원료로 이슬같은 깨끗함'. Bottom text: '광주전남사랑기금 2억원 조성'.

Cartoon titled '빛의만평' by Kim Jong-du. It depicts a man in a suit talking to a man in a chef's hat. The man in the suit says '크달 가달아서 무하시게?' and the chef replies '바다 가서 고래 잡으려고?!'.